2026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6.10.26.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5	1	13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김혜영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최기웅 보도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11	2	-	2	15	-	15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5	-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지역사 뉴스 교환 관련>** 8월 24일, 25일 대전MBC 뉴스에서 보도된 한남대 철도 직선화 공사 관련 상충되는 보도가 광주MBC에서 9월 16일에 보도가 됐음. 뉴스를 교환할 때 2~3일 정도 시차를 두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쁜 소식을 몇 주 후에 타 지역에서 보도한 이유가 궁금함.	전국 MBC 지역사 보도국장과 내용을 공유함 <26. 10월 조치>	'26.9월
보도	**<뉴스데스크 동일 아이템 관련>** 세종시 대리운전 기사가 취객 승객에 의해 담뱃불로 화상을 입었다는 단독보도 내용이 같은 날 서울과 대전 뉴스에서 비슷한 화면으로 동일하게 방송이 됐는데 서로 다른 내용으로 방송되면 좋겠음.	서울 뉴스데스크 방송 리포트와 지역 방송 리포트를 별도로 편집해 방송함 <26. 10월 조치>	'26.9월
보도	**<충남대 공주대 통합 이슈 보도>** 통합 관련해서 대학 교직원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음. 재학생이 느끼는 체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대학 본부 차원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 불발이나 과정 지연에 대한 재학생들의 의견도 함께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한 뉴스 방송 -[리포트]충남대 통합 재추진…구성원 설득 '관건' (11/5 방송) [리포트]"원안대로 재투표"…학생 반발 '격화' (11/10 방송) <26. 11월 조치>	'26.10월
보도	**<트램 공사 관련 보도>** 트램 공사로 인해 대전 시내 교통이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공사로 인해 언제까지 불편이 예상되는지, 또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분석해 주길 바람.	*[리포트]대덕대교 이어 온천교도 통제…출퇴근길 혼잡 대책은? (11/9 방송)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정보성 뉴스 제공(대덕대교 통제 후 퇴근길 교통CCTV 실황 중계) *시시각각 107회 [대전 트램, 2030년 개통할까?] (11/15 방송) <26. 11월 조치>	'26.10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아이템 중복>** <오늘M>,<테마기행 길>,<전국이 보인다>는 모두 볼거리, 먹거리 등 생활정보 및 기행형 포맷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오늘M>은 지역민의 생활 밀착형 정보에, <테마기행 길>은 여행과 문화에 집중해서 프로그램 성격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음.	<오늘M> 제작진에게 자사 및 타사 아이템 선정 시 생활밀착형 정보 위주로 선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함. <26. 10월 조치>	'26.9월
교양	**<인생내컷 아이템 관련>** 공동 제작으로 지역과 소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음. 더 나아가 그 분들의 삶이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살펴주기 바람. 지역 특산물인 포도를 이용해 와이너리를 일궈낸 과정과 지역 농가의 상생 모델을 조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의 가치를 잘 담아냈음. 지역별 전통주 양조장도 많은데 다양하게 담아주면 좋겠음	4분기 지역MBC 편성책임자회의에서 타 지역사들에게 <인생내컷> 공동제작에 참여할 것을 제안함. 지역의 양조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출연자를 선정해달라고 제작진에게 의견 전달. <26. 10월 조치>	'26.10월
총 건수		**6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https://tjmbc.co.kr/MinutesOfTheMeeting)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 고 (총 선임기간)
위원장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위원	조정현	대전위캔센터장	대전YWCA	여성단체	26.5.1~28.4.30
위원	박지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6.5.1~28.4.30
위원	김혜영	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대전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인권단체	26.5.1~28.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영화 장소 제공 관련 보도>** 관련 보도가 정치권의 비판과 반박만을 전달하는데 집중하면서 촬영 허가 기준, 행정 절차, 영화제 폐막작 선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쟁점을 검증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음.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취재가 필요해 보임	영화 암살자의 대전시 장소 제공에 대한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객관적인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면 시민들에게 유익한 논점을 제공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음. 향후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음	○		
보도	**<민선9기 취임 100일 성과 보도>** 취임 100일이라는 시기가 많은 공약들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에 이른 시기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함. 6개월이나 1년 뒤 다시 점검하면 지역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 같음. 꾸준히 추적하고 점검까지 진행했으면 좋겠음	취임 100일이 대전 세종 충남 전체를 관통하는 가늠자 역할로 생각해 마련된 기획으로 시민, 도민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했다고 생각함. 1년 뒤 또는 특정시점에 정책검증을 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음	○		
보도	**<정부 출연연 국정감사 관련 보도>** 정부 출연연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로 지원 축소 등에 따른 연구자 처우 문제가 언급된 바 있음. 연구자 처우 문제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짚어주길 바람	국감 보도 관련해서 연구자 처우 문제에 대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함. 앞으로 국감에서 지적됐던 사안들과 인력 공백에 따른 단절 문제들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음	○		
보도	**<충남대 공주대 통합 이슈 보도>** 통합 관련해서 대학 교직원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음. 재학생이 느끼는 체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대학 본부 차원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 불발이나 과정 지연에 대한 재학생들의 의견도 함께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대학 내 구성원들이 교직원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학생들도 있는데 정책설명회 후 하루 만에 투표를 진행해 소통이나 공감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그런 부적절한 부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		
보도	**<현대제철 산재 사고 보도>** 시도 단체장의 동정이나 발언을 뒤따라가는 보도들은 단신 기사라서 보충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어렵겠지만 해당 현황과 문제점을 짤막하게 함께 다뤄주길 바람. 예를들어 충남도지사 산재예방 관련 협약식 보도에서 산재 사망 현황 등을 간략하게 함께 전달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당일 상황은 충남도 산재 협약식 내용을 편집하는 중에 산재 사고가 발생했고 협약식 내용에 통계들이 나와 있어서 협약식 보도를 산재사고 보도 뒤에 배치했음. 충남이 산업 기반에서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가 많아 그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		
보도	**<축제 불꽃놀이 관련 보도>** 축제 불꽃놀이 관련 보도를 보면서 뿌	축제 불꽃놀이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목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리공원 축제에서 동물과의 공생을 위해 불꽃놀이를 취소했다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를 소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하지만 불꽃놀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쇼 등 대안 제시도 같이 덧붙여서 보도했다면 더 풍성한 보도가 되었을 것임.	받는 장치라서 많이들 하는데 불꽃놀이가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느니 상생과 공존을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보도였음. 불꽃놀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보도	**<트램 공사 관련 보도>** 트램 공사로 인해 대전 시내 교통이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공사로 인해 언제까지 불편이 예상되는지, 또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분석해 주길 바람.	트램 공사로 2년 여 동안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데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을 통해서 우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시민들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고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비판 보도도 이어가겠음.	○		
보도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보도>**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27년부터 31년까지 이전하는데 대전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이전하면서 청 단위는 대전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음. 대전이 계속 소외당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시시각각> 등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주면 좋겠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세종으로 가면 대전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전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있음. 반도체 벨트와 같은 산업 벨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 보도하겠음.	○		
보도	**<지역별 교육 격차 관련 보도>** 한국어 교육지원 관련 보도에서 대전, 세종은 한국어학급이 없고, 충남은 6개라고 해서 지역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음. 지난 10년간 이주 배경 학생들이 110% 증가 했는데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과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음.	지역별 교육 격차와 통합 교육 부재 등 평소 간과했던 교육관련 자료들이 국감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나오게 됨. 국감 기사로만 이슈를 소비하지 않고 향후에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 심층 보도를 이어가겠음	○		
보도	**<경찰의 날 기획 관련 보도>** 경찰의 날 기획 '우리가 먼저 갑니다. 시민 안전 지키는 싸이카' 보도에서 이분들의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부분을 잘 짚어 주었음.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들을 다뤄주길 바람. (최승인 위원)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특수 분야에서 일하는 직군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많이 성장 했지만 아직까지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이 분들의 협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상생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음	○		
보도	**<공공 재활병원 관련 보도>** '내포 어린이병원 재시동 의료진 확보 과제' 보도에서 의료진 확보가 과제라고 했는데 어린이 병원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음.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필요함.	어린이 공공 재활병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부분이 더 필요함.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확보 문제, 그리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에 대한 격차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음	○		
교양	**<오늘M 아이템 관련 >** <오늘M> 부여편은 먹거리나 볼거리가	<오늘M> 부여편은 지방 소멸 특집으로 총 6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아닌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의제를 연결해서 지역 예술가들의 정착 과정을 조명했음. 이렇듯 생활 정보 제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해서 보여준다면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음.	해당 내용은 1부의 내용이었음.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내용으로 확대된다면 지역성에 걸 맞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교양	**<인생내컷 아이템 관련>** 공동 제작으로 지역과 소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음. 더 나아가 그 분들의 삶이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살펴주기 바람. 지역 특산물인 포도를 이용해 와이너리를 일궈낸 과정과 지역 농가의 상생 모델을 조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의 가치를 잘 담아냈음. 지역별 전통주 양조장도 많은데 다양하게 담아주면 좋겠음	현재 3사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회사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메시지를 담아 보여주도록 하겠음. 전통주 장인뿐만 아니라 악기장, 불교사찰 관련 장인 등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하겠음. 잔잔한 감동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소재 발굴에도 신경 쓰겠음.	○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자막 관련>** 홈페이지에서 <뉴스데스크> 다시보기 영상을 재생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막에 오타가 있고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음. 자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다시보기는 제작자가 자막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 유튜브 자막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생성되는 자막임.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오류나 엉뚱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		
기타	**<제작 환경 개선 및 투자 관련>** 시기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지역 방송의 강점이나 무기는 지역 콘텐츠 강화라고 생각함. 내년에도 방송 제작 환경과 제작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더 좋은 방송 제작 환경과 처우 개선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깨끗한 화면과 좋은 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투자에 신경을 쓰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		

2026년 10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김혜영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이재우 경영국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임세혁 편성국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재우 경영국장
오늘 회의는 7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3건입니다. 자막 불만 1건, 기타 문의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견들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김욱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신 후에 정기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오늘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박은숙 위원님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위원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들을 살펴봤는데요. 관심을 갖고 보았던 것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 보도였습니다. 10월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를 하셨는데요. 10월 3일 보도에서는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대전시가 2025년 7월에 동구 소제동과 옛 충남도청에서 촬영을 허가한 경위와 대전 특수 영상 영화제 폐막작 선정 배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전시의 설명을 중심으로 이 논란이 지역 행정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10월 7일 보도에서는 대전시장이 영화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촬영 장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뒤에 국민의 힘 대전시당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세 번째 10월 9일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인데 대전시의 공공시설 제공과 영화제 폐막작 선정 문제로 연결해서 지역 현안으로 다룬 점은 상당히 시기적절했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또한 관련 논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상반된 입장을 차례로 전달해서 정치권의 공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쉬웠던 것은 보도가 정치권의 비판과 반박만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서 촬영 허가 기준이라든지 행정 절차, 영화제 폐막작 선정 과정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을 언급하면서 실제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설정을 비교하거나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쟁점을 검증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창작의 자유에 관한 논쟁은 이런 사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검증해서 정치적 공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본질을 멀리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취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생내컷> 10월 18일에 나무에 새긴 인생 목공예가 박희춘 님을 소개했는데요. 목공예가의 삶과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라는 것이 나무를 소재로 해서 인간의 기술과 감각, 시간을 더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야인데요. 목공예가의 인생을 다루는 것은 한 사람의 직업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를 지켜온 사람의 삶을 조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옹이 없는 인생이란 없다는 말이 그의 인생과 어우러져서 깊은 감동을 더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내컷>은 이렇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다양한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공동 제작을 하면서 지역과 소재도 확대돼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삶이 우리 사회와 지역 문화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살펴주는 그런 프로그

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달 동안 재미있고 의미 있게 잘 봤습니다.

김욱 위원장
박은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오늘M> 10월 21일 부여 특집으로 '부여에 살고 싶다.'를 살펴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청년 예술가들과 같이 연결해서 방송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오늘M>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매력을 주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먹거리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중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테마들이 <오늘M>에 나오는데 그 테마에 맞춘 다양한 직업군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술가들을 조명하면서 지역 소멸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보여준 것처럼 테마별로 다양한 직업군이 패널로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준다면 각자의 시선으로 지역 경제, 문화, 일자리 그리고 주민의 삶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M>이 지역의 볼거리와 생활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해서 보여주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자들 외에 일반 패널들도 각 테마별로 한 번씩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시시각각>에서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도지사를 초대해 취임 100일의 성과와 비전들을 살펴봤는데요. 지자체 3곳의 성장과 비전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교통과 지역 경제, 세종의 행정 수도 자족 기능, 충남의 미래 산업과 에너지 환경 문제 등 지역별 주요 현안을 다뤘다는 점과 시청자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 있었습니다.

다만 취임 100일이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많은 공약들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책설명회에 더해 시민들이 얼마만큼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주요 공약이 어떤 일정과 과정을 거쳐서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개략적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주요 약속 과제들을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점검하면 지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이 정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고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요 의제를 꾸준히 추적하고 점검까지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강희 부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위원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자동으로 송출되는 자막에 오타나 정확하지 않은 단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공장소에서 웹 사이트를 통해 <뉴스데스크>를 볼 때 이어폰이 없어서 음성을 끄고 봤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자막에 오타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자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0월 20일 "국정 감사장에 휴머노이드 등장" 보도에서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휴머노이드가 국회 과방위에서 선보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지원 축소 등에 따라 연구자 처우 문제 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꽤 많은데요. 연구자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도 함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이라든지 연구 기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간단하게 함께 보도됐다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관련된 모든 보도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고 말씀드려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느낀 점은 대학 교직원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이 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만 재학생이 느끼는 체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다 보니까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재학생은 통합 불발이나 과정 지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지역 언론에서 시도 단체장의 동정이나 발언을 뒤따라가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1분미만의 단신 기사로 처리되다 보니 여기에 보충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 동정과 더불어 현황과 문제점을 뒷부분에 짤막하게 함께 다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예방 관련 협약식 보도에서 충남도지사의 발언만 전달하는 것보다 그와 더불어 충남 지역 내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과 주요 원인, 기존 대책의 한계 등도 간략하게 함께 전달해 주면 보도의 정보성과 공공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욱 위원장

백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선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선혜 위원
이번 달 뉴스 보도 중에 가장 눈여겨보았던 기사가 10월 24일자 리포트로, 축제 “사람 더해 자연도 행복해야”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장의 불꽃놀이로 인해서 인근 수목원에 불이 붙었고, 화재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수목에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요즘 축제철로 주말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축제를 너무 많이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불꽃놀이도 과도할 만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꽃놀이가 인간이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동물의 입장에서는 소음과 빛이 상당한 공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포트에서도 뿌리공원 축제에서 동물과의 공생을 위해 불꽃놀이를 취소했다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를 소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이 즐거운 행사이지만 밝은 면만 보지 않고 이면에 있는 어두운 면도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해당 보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 불꽃놀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 쇼 같은 걸로 대체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안 제시 같은 것도 덧붙여서 보도했다면 더 풍성한 보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내컷> 10월 25일자 ‘와인에 빠지다! 와이너리 김덕현 대표’ 편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해당 내용이 지역 특산 농산물인 국산 포도나 산머루 품종 등을 활용해서 와이너리를 일궈낸 과정과 지역 농가의 상생 모델을 조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역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로컬 크리에이터 조명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로서 바람은 각 지역별로 와이너리 뿐만 아니라 전통주 양조장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담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욱 위원장
문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현욱 위원
그 전부터 계속 기사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폭행 단독 보도입니다. 6번 정도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보도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를 묶어놓고 아동 학대를 했던 내용도 있었고, 반면에 화재가 있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빠져나와서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그렇게 잘 된 사례와 잘 못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적 장애 폭행 관련 보도를 보면서 부모 심정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학생은 지금 학교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난번 참교육 드라마가 나왔을 때도 제가 회의 때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니 이런 것들을 다뤄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트램 공사로 인해 지금 대전시내 교통이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요. 공사로 인해 언제까지 불편하고 또 어떻게 우회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MBC에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27년부터 31년까지 이전을 하는데 대전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이전하면서 청 단위는 대전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 계속 소외당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시시각각> 등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승인 위원님 부탁합니다.

최승인 위원
<뉴스투데이> 리포트 관련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10월 22일 보도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천차만별이라고 해서 대전, 세종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0”개다 라는 내용인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인용 보도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시의 적절했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의 고교 이주 배경 학생은 655명이고 세종은 142명인데 한국어 학급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2,794명에 6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교를 통해서 지역별 교육 여건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10년 전인 2016년도에 이주 배경 학생들이 9만 명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21만 명 정도로 약 110%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이슈도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 아동들의 생활을 위해서 한국어 학습, 학부모들의 생활 정보 상담, 학습 격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봤을 때 다 같이 나서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들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 부분들을 고도화돼서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좋은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리포트 중 하나가 “경찰의 날 우리가 먼저 갑니다. 시민 안전 지키는 싸이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보도를 통해 경찰의 날이 있는 걸 알았고요. 늘 욕만 먹고 앞서서 봉사했던 직군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계속 해왔던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처우라든지 안정성 부분들을 보고 전망을 많이 하는데 실제 언론에서 보이는 직업군들은 사건 사고나 부정적인 부분이 터졌을 때 그 직업을 언급하는 형태의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공공 서비스에 계신 다양한 직군들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소방, 경찰 등 이런 분들이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뉴스에서 다뤄주시면 그 분들한테 큰 사기 진작이 될 것 같고, 더불어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도 보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10월 26일 “내포 어린이병원 재시동 의료진 확보 과제”라는 보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린이 공공 재활병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운영이 힘들고 의료진에 대한 의료 처우라든지 서비스 부분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도 내포 어린이 병원 재시동은 좋은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내용으로 “의료진 확보가 과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봤을 때 어린이 병원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체계 대란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후년에 개원하면 이 병원이 과연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익성을 갖는 공공 서비스가 꼭 수익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대전 어린이 재활병원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포 어린이 병원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방송 제작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시청자 위원님들이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뉴스룸 백월 영상 장치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나름대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지역 방송의 강점이나 무기는 지역 콘텐츠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년 방송 제작 환경에 대한 부분과 콘텐츠 관련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를 논하실 때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욱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좋은 의견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할까 하는데요. 앞에서 박은숙 위원님께서 암살자들 영화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영화는 창작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은데요. 조선시대 ‘왕과 사는 남자’ 도 역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없어서 감독이나 기획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 건은 아마 근현대사라서 논란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드라마도 이렇게 까지 크게 논란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 건 이해가 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TV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전시나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보도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점에 공감이 됩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회사 국장님들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영화 암살자들은 전국적인 정치적 이슈로 시작됐다가 대전시로 불똥이 튄 이유는 국감 시즌하고 결합되면서 대전시의 장소 제공에 대한 국감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청 요구가 빗발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보도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장소 제공은 전 시장이 결정한 부분인데 현 시장한테 왜 따지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적 이슈만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공간 제공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기사까지 나갔다면 정치적 이슈로 인해 촉발된 쟁점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도 좀 더 유익한 논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들이 수익의 문제 때문에 이런 장소 제공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시시각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민선 9기 취임 100일이 어떻게 보면 대전 세종 충남의 정책들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늠자 역할이 아닐까 해서 마련된 기획입니다. 특히 현재 성과로 전체 성패를 논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요. 다만 어떤 청사진을 그려갈 수 있을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년 뒤 또는 특정 시점에 매니페스토 정책 분석도 있겠지만 실제 공약들과 제시했던 정책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검증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충남도의 AI 정책이 실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자막 오타 부분은 저희가 자막을 직접 제작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자막 자동 완성 기능이 결합돼서 오타가 많이 나는 건데요. 듣는 대로 쓰는 AI도 정확해 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치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나 엉뚱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보도 관련해서 연구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과거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폐해들이 항상 이슈였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한국과학기술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담론들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실제 앞으로 과학기술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줄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감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과 특히 과거 정부 때 삭감됐던 많은 연구 예산들이 다시 복원됐습니다만 인력 공백에 따른 단절 문제들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공주대 통합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안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충남대로서는 그 동안의 사업비 등 거의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상당히 큰 파장을 주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 구성원들이 교직원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학생들도 있고 특히 졸업생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정책설명회 이후 투표과정에서 정책설명회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된 게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 안에 정책설명회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서 소통이나 공감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적절한 부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지사의 산재 협약식 관련 보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사가 현대제철 사고 뒤에 붙었을 겁니다. 공교롭게 그날 협약식 내용을 편집하는데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충남도 협약식 기사 앞쪽에 관련 통계들이 붙은 상황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충남이 산업 기반에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많아서 그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혜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장 불꽃놀이 관련 기사는 후배 기자가 발제를 해서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불꽃놀이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장치라서 많이들 하지만 생태계 차원에서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생물까지 걱정해야 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상생과 공존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불꽃놀이가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축제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마련한 보도입니다. 불꽃놀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장애인 폭행 단독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촉법 소년들이라서 보도하는데 어려움과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면서 보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진 촉법 소년의 일탈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어서 소년범의 연령 논의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학교 폭력의 정점과 같은 사건이라고 평을 하고 있는데 학교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쇼킹한 사건 자체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빚어지게 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부재들과

법적 미비점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트램 공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이 대덕대교 뿐만 아니라 유성 등 다른 지역까지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2년여 동안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우회 정보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찾겠습니다. 또한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비판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2차 이전 기관들이 세종으로 내려오면서 대전이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는 소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과학 관련 기관들의 정치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중심주의로 볼 때는 세종과 대전이 붙어 있어서 세종으로 가면 대전으로 다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대전으로 모두 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세종 충남도 있으니 같이 협력해서 반도체 벨트와 같은 산업 벨트들을 크게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제안들을 의제로 발굴해서 보도할 생각입니다.

최승인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별 교육 격차와 통합 교육 부재 등 교육 관련 자료들은 국감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의원발로 나옵니다. 저희가 평소 간과했던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국감 기사로서만 이슈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관련 이슈를 잘 갈무리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육 자료들을 향후에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심층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날 기획 보도 관련해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도 과거보다는 국민적인 인식이라든지 공감대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특수 분야에서 일하는 직군들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쉬는 날 일하는 직군이나 도로교통 같은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가끔씩 기획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생하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분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희생들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보도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재활 병원 관련한 보도도 지적해 주고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충남 어린이 공공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한 확보 문제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에서 필수 공공의료 체계 확립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대전시 안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있습니다. 전국 60개 정도의 구 단위에서 대전 서구가 3위 정도이고 동구는 50위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의료 접근성에 대한 격

차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오늘M> 부여편은 지방 소멸 특집으로 '부여에 살고 싶다' 6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5편은 관련 아이템을 제작하고 한 편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신 내용은 1부로 '청년의 예술로 변화하는 부여' 사비공예 마을에 입주한 청년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2부는 부여 중앙시장에 입주한 청년상인들, 3부는 심리 책방 휴양지를 운영하는 김상일씨 부부와 공동육아센터를 운영해 결혼하고 싶고, 아이 키우고 싶은 부여를 소개합니다. 4부는 여흥 민씨 고택에서 한 달 살이 하는 입소민들이 지역 원주민들과 교류하는 내용을 다루고, 5부는 스마트 농업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이 농업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내용으로 꾸밀 예정이고, 마지막 6부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내용으로 확대된다면 지역성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숙 위원님과 문선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인생내컷> 해당 회차는 대전이 만든 게 아니라 전주와 충북에서 만들었는데요. 대전에서 만든 단국대학교 트로트 박사 장유정 교수편도 재미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만든 박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긴 호흡으로 50분 다큐가 가능합니다. 이분이 전주에서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외할머니와 살다가 동네 목사님이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고아원으로 보내져 고아원에서 자랐고, 목공소 앞에 뒤주를 보고 그 공예에 빠져서 목공소에 일을 하게 됐고, 티크장이 유행할 때 서울에서 그걸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다가 IMF때 어려워서 다시 고향인 전주로 내려와서 극적으로 외할머니와 상봉하게 된 건데요. 같이 살 집을 지으면서 목공 학교를 운영하면서 활발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60세부터 목공예 아트 예술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MBC 본사를 포함해 인생 휴먼 다큐를 다루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주MBC까지 참여해서 3사가 함께 제작하고 있는데 더 많은 회사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는 만큼 더불어 살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까지 행사한다면 그게 바로 사람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직업의 출연자들을 통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와이너리도 처음 다룬 게 아니라 충북에서도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서태평양 섬으로 징용됐다가 그 곳에서 스페인 사람이 건네준 와인 맛을 잊지 못해 징용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50분물이 됩니다.

문선혜 위원님께서 전통주 장인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악기장도 많고 불교 사찰 관련한

장인들도 많을 텐데 긴 호흡이 되는 분들은 <인생내컷>에서, 시간이 짧을 것 같으면 <오늘M> '오늘 쉼터' 코너에서 10분 미니 다큐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금산 쪽에 유명한 표태선 악기장이 <오늘M>에 10분 미니 다큐로 나옵니다. 지역에서 방송하는 유일한 휴먼 다큐인 만큼 잔잔한 감동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제작과 소재 발굴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막 관련해서 방송 프로그램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그 주소를 다시보기 링크로 연결해서 표출되는 유튜브 포메이션인데 거기서 생성되는 자막을 CC(Closed Caption)라고 합니다. 자막 형태는 제작자 제공 자막과 자동 생성 자막이 있는데요. 제작자 제공 자막은 완벽한 자막이 필요할 때 자막 파일을 같이 업로드 하는 것이고, 자동 생성 자막은 AI기능을 활용해 나오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막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대로 문법이나 어순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방송사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년 전보다는 자동 작업이 잘돼서 에러가 많이 감소한 상태이긴 한데 AI기능 발전에 따라서 좀 더 업그레이드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작자 제공 자막으로 자막을 제공하는 방송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자막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더 좋은 방송 제작 환경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명심해서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욱 위원장님과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오늘도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회사 측에서도 많은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위원님들 한 분씩 짧고 가볍게 말씀해 주시지만 차후에 보도나 방송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좋은 말씀들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환경이나 처우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재원이 있지만 않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깨끗한 화면과 좋은 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준비한 특집 다큐멘터리 <역전의 빵>이 11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4부작으로 방송할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에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1년에 한 번 지역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데 지역MBC에서 공동 제작한 <한국의 둘레길>이 은상을 받았고 <애들은 가라 1호점>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